

'아시아 옷칠 문화' 유네스코 등재 로드맵 구축

남원시, 아시아 옷칠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성공적 발판 마련

남원시가 아시아 각국의 옷칠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에 핵심 지자체로 동참하며 전통 옷칠·목공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남원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6년 아시아 옷칠 교류 프로그램'에 국내 협력 지자체로 참여해 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8개국의 옷칠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의 전승 현황을 공유하고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했으며, 남원시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술 교류와 현장 답사를 긴밀하게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참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포럼에서는 남원목공예협회 박경표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남원 옷칠 목공예 문화의 전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남원 옷칠이 가진 깊은 역사성과 지역사회 기반의 진흥 사례를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공유하며 공동 등재를 위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해 큰 공감을 얻었으며, 18일에는 아시아 8개국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답사단 30여 명이 국내 대표 옷칠 목공예 생산 거점인 남원시를 방문하여 현장 교류 프로그램이 집중 전개되었다.

남원시가 전담하여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기술이 현대적 산업과 어떻게 상생하고



남원시가 아시아 각국의 옷칠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에 핵심 지자체로 동참하며 전통 옷칠·목공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있는지 보여주는 직관적인 현장들로 심도 있게 진행, 답사단은 '남원시 옷칠공예관'을 찾아 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옷칠목공예대전'의 역대 수상작들을 관람하며 남원공예의 정수를 확인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박강용 옷칠장 명예보유자의 정교한 옷칠 정제 시연과 이 건무 명인의 목공예품 제작 시연을 참관하며, 원자재 정제부터 완성품 제작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남원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서울공예박물관, 원주시와 아시아 옷칠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4시간 업무협약' 체결도 본격 추진,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9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한 국제 공동 조사와 연구 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대 공감 이끄는 미술관 특별전

정읍시립미술관, 도내 공립미술관 소장품 공유

정읍시립미술관이 오는 7월 19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 '산, 들, 바람 그리고 이곳'과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버라이어티 베어(Variety Bears)' 시즌 3을 동시에 열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선사한다.

'산, 들, 바람 그리고 이곳'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자연과 장소를 다룬 작품들을 엄선해 제2전시실에 차려냈다. 전북 출신 박민평, 송수남 작가를 비롯해 한운성, 지용출 등 예술가 17명이 참여해 평면과 입체 작품 26점을 내놓았다.

단순한 경관 재현을 넘어 장소, 기억, 지각이 교차하는 경험의 공간으로서 풍경을 바라보는 동시대 작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시선을 엿볼 수 있다. 화면 속 자연의 물리적 요소들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거쳐 새롭게 해석돼 관람객에게 익숙한 풍경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버라이어티 베어(Variety Bears)' 시즌 3은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하는 시민 친화형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전시물이다. 특히 영상, 소리, 공간 연출을 더한 몰입형 작품인 이번 전시는



자연 풍경 속에 등장한 거대한 곰 인형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람객에게 유쾌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낮은 존재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신선한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준다.

기획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이다. 매주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문화도시센터, 녹두 디저트 기획전시 판매전 운영

고창문화도시센터가 19~20일 고창문화도시 홍보관 '안녕 라운지(고창문화의전당 앞)'에서 녹두 디저트 판매 행사(마음은 녹두발)를 진행한다.

고창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디저트를 군인과 관광객에게 선보이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녹두가 건네는 달콤한 마음처럼'을 주제로 고창의 자연과 역사, 치유의 가치를 담은 디저트를 전시·판매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과 교류의 공간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고창_돌의 시간'과 '달숨:Sweet Pause'를 만나볼 수 있다. '고창_돌의 시간'은 고창 고인돌과 고창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담은 녹두 마들렌과 쿠키로 구성된 상품이다. '달숨:Sweet Pause'는 고창 녹두와 새싹보리를 활용한 수제 카라멜 제품이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는 맞춤형 제공된다. 또한 구매금액별 회전권 행사를 운영해 녹두 열쇠고리, 녹두 화분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창작합창서사시로 만나는 세종대왕 애민 정신'

전주시립예술단, 26~27일 연합공연 '훈민정음' 개최

전주시립예술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과 27일 오후 3시 등 총 2회에 걸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연합공연인 창작합창서사시 '훈민정음'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합창단 김철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총감독을 맡고,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조민철 연출가가 연출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전주시립예술단 116명과 광주시립합창단 45명 등 총 161명의 출연진이 참여해 웅장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창작합창서사시 '훈민정음'은 국립합창단 전속작곡가로 활동했던 오병희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으로, 지난 2021년 초연 이후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을 음악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창작 합창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립예술단은 한글 창제 5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의 배경과 원리, 반포와 효용의 과정을 합창과 오케스트라, 국악,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무대로 풀어낸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조선 초기 백성들의 삶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본 세종대왕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고자 했던 뜻을 그려내며, 스물여덟 자로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이어 2부에서는 훈민정음 반포 이후 백성들의 삶에 스며든 한글의 가치와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정신을 감동적으로 담아낸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R석 1만 원, S석 7000원이며 나루컬처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개최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의 2026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선정단체인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20일 오후 4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독일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대표 작품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와 교향곡 제5번 '운명'으로, 베토벤 음악의 웅장함과 깊이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베토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서형민이 협연자로 참여한

다. 서형민은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연주할 예정이다.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 활동과 정기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티켓은 사전 예매 또는 공연 시각 20분 전부터 현장 발권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